

# 곡성군, 식목일 나무심기로 자작나무 숲시범 조성



곡성군은 지난 2일 오희면 미산리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일환으로 자작나무 등을 식재했다고 밝혔다. 군유림인 오희면 미산리 산96번지

에서 진행된 나무심기 행사에는 산림과 직원 등 20명 남짓이 참석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간소하게 진행한

## 오희면 미산리 20명 남짓 참석 소규모 진행 지역만의 특색 있는 숲 '자작나무' 선택 식재

것이다.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한 철쭉 10본과 자작나무 40본 가량을 식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눈여겨볼 점은 자작나무를 수종으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숲으로 자작나무 숲이 가능한 지 가능해보고자 한 것이다. 지대가 높은 미산리를 나무심기 대상지로 고른 것도 자작나무가 비교

적 추운 곳에서 잘 자란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곡성군은 지난해에도 자작나무 30여 그루를 심은 바 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곡성군 산림과 담당자의 전언이다. 군 관계자는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더 많은 나무와 식물을 가꾸고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

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군민들의 활동이 제약되고 그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 생활권 주변이나 주거 공간 내에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도 우울감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다."라며 나무심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림인접지역의 영농폐기물 등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 심은 나무들이 산불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 장성군, 육군사관학교 유치전 뛰어 들었다

장성군이 육군사관학교 이전 유치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상무대와 연계한 효과적인 군사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46년 서울시 노원구 일대(공릉동 1-1번지)에 자리잡은 육군사관학교는 초급 육군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군사학교다. 부지 면적 65만평(213만㎡)으로, 각종 기초현설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총 학생 수는 1300여명 규모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 소유인 서울 태릉골프장 개발과 육사 부지 이전이 거론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경기, 충남, 강원, 경북 등지에서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장성군도 작년 8월부터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을 검토했으며, 지난 3월 5일에는 이전 추진안을 대통령 선거 대비 정책과제로 전라남도 측에 제출했다. 이어서 17일에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공약에 '육군사관학교 장성군 이전'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면서 유치 추진을 본격화했다.

장성군의 육사 유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상무대와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성군에 위치한 상무대는 육군 최대의 군사교육시설이다. 309만평(1024만㎡) 규모에 5개 병과학교와 2개 지원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3만 3000여명의 교육생이 병과별 훈련을 통해 정예 육군으로 거듭난다. 장성군에 육군사관학교가 들어서면 양 군사교육기관 간의 원활한 교류와 상호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육사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지역 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와 인구 유입 유발을 통한 상권 활성화가 전망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육군사관학교의 장성 이전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과 궤를 같이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상무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미래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구례군, 불법·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접수 5월 24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벌칙·과태료 등 면제

구례군은 신고·허가 없이 이용 중인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이용 중인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5월 24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와 법무부 협의로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월 31일 현재까지 군에 자진신고 접수 건은 대략 5백 공이며, 계속해서 신고접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벌칙(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자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최소화화를 위하여 이행보증금, 수질검사 성적서,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등도 모두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061-780-81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빠짐없이 신고하여 범 위반사항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강인규 나주시장 "백신접종 준비 끝"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 점검



강인규 나주시장은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을 방문하여 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나주시는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이달 중순 경 만75세 이상 시민 1만2119명을 대상으로 1일 600명씩 화이자 백신 접종을 개시

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입·출구 및 예진, 접종, 전산등록,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접종 단계별 구역 동선과 백신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전기·소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원활한 접종을 위해 5일 예정된 경찰서·소방서·군부대·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모의훈련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진에서부터 접종, 전산등록, 이상반응 관찰까지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불편 없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가겠다"며 "1일 600여명의 접종 인원에 따른 혼잡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와 안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기동취재본부

## 담양군, 청년 관광사업가 육성한다

담양군이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사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청년 관광사업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사업은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담주 다미담예술구에서 지역에 새로운 청년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청년 관광사업가 육성 교육은 담양 지역의 문화, 역사, 예술, 생태 자원을 여행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교육과 상품개발 및 시범사업화를 교육하는 심화교육, 컨설팅 및 프로그

램 제작비 지원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1월 기초교육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잠시 중단되었던 심화교육 단계로 4월 5일부터 진행되며, 로컬크리에이터 플랫폼, 관광트렌드 및 동향, 홍보/마케팅, 로컬여행투어를 주제로 진행된다. 아울러 최종 관광 콘텐츠는 참여자가 직접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담주 다미담예술구(담주4길 24-36)에서는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여행자 플랫폼'도 조성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 "농사 준비는 토양 검정으로 시작하세요"

화순군, 토양 검정 서비스...작물 재배 전 시료 채취해야

화순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 논밭의 건전한 토양 환경 조성을 위해 토양 검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토양 검정은 불필요한 비료를 줄이고 작물의 균형 있는 생육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검정 항목은 산도(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OM),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등으로 토양 검정 후 해당 필지에 대한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토양 채취 시기는 작물 재배 전(밀 거름 사용 전)이며, 표토의 이물질을 걸러낸 후 작토층(15cm)까지 채취해야 한다. 필지별로 5~10곳 정도 채취 지점을 선정해 균일하게 채취하고, 채취한 흙을 혼합해 500g 정도를 시료 봉투에 담아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 검정을 의뢰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 검정과 시비 처방서 발급은 무료이



며 지역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며 "토양 검정으로 논밭의 특성을 파악하고 합리적 토양관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팀(061-379-5414)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